

‘왕인문화축제’ 5년 연속 국가축제 선정

한국관광공사 통한 국내외 홍보 적극적 지원 받아 축제 세계화 규제 개선...한일 프로그램 공동 운영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왕인문화축제는 이로서 지난 2015년 이후 인물축제로서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게 됐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41개에 포함돼 예산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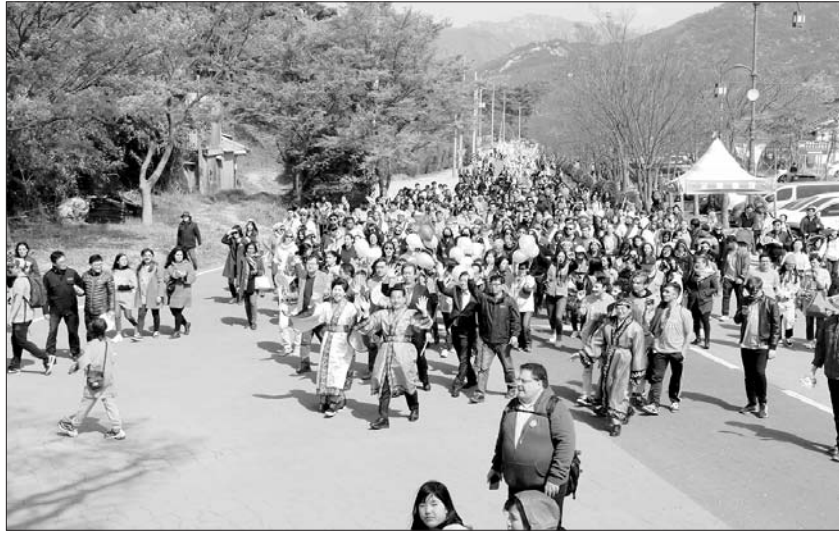
아울러,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다양한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왕인문화축제 세계화'와 '우수축제'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1만여명의 외국

인 관광객 대거 유치, 명품 프로그램 개발 및 차별화된 향토음식판매관 운영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은 '왕인문화축제 세계화' 계획으로 한·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왕인문화축제의 컬러콘텐츠인 왕인박사 도일행렬과 일본 간자키시의 마즈리 환영행렬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상호 대규모 방문단이 참여하는 왕인박사 관련 주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고품질 농·특산물 판매 및 향토음식 판매관 고급화와 함께 축제장 브릿지 타임 때 농·특산물 깜짝 경매와 택배서비스를 운영하며, 11개 읍·면 향토음식관을 대형 TFS텐트로 고급화할 계획도 세웠다.

군은 특히 외국여행기자 및 파워블로거 등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왕인문화축제 도일행렬.

외국인 관광객 1만여명을 유치하고, 해외홍보물을 사전 제작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국외여행업체 등에 발송하는 한편, 외신기자단 팸 투어 및 여행사에 특화된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홍보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군 축제담당자는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된 만큼 이제 '우수축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외

국인 관광객 유치행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명품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축제의 세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인문화축제는 2013년과 2014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서 탈락했다가 2015년에 2년 만에 다시 '유망축제'에 선정됐으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주)네이처리스, 10대 고용우수기업에 선정

정규직 75% ↑ 고용유지율 100% 성과 올려

강진군의 농업회사법인 (주)네이처리스가 '2018년 전남도 10대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돼 최근 인증서를 받았다.

'고용 우수기업'은 도내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면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이상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전남도가 선정한다.

총14개 시군 23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이 선정됐다.

(주)네이처리스는 1년간 정규직 75% 증가, 청년채용률 50%, 고용유지율 100%의 실적으로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었다.

또한 직원복지후생 및 근로기준법 준수 분야에서 추가 점수를 획득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네이처리스 직원들과 인증기관 현관식을 진행하면서 "강진군에서 처음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에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일자리발굴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년으로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원이 지원되고 시설자금 융자한도 2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3년간 지방세 세부조사 면제 및 청년근속장려금 우선지원 등 각종 사업 신청 시 우대 받는다.

한편, 김태중 네이처리스 대표는 "이번 고용우수기업 인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함께해 준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주)네이처리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곡물도장, 농수산물 등을 가공하는 기업으로 주생산품목은 쌀이며 www.농부애밥상.com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강진=윤규진 기자 jin2001@

진도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완료 개장

진도군은 진도실내수영장 천장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재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도실내수영장 실내온도 유지와 지붕 철재 부식 예방을 위한 천장 설치 공사를 완료해 재개장 한다고 밝혔다.

진도실내수영장은 천장이 없고 바닥 면적이 넓어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잦은 실내 온도 변화로 이용객이 불편했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진도군은 1억7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천장 설치공사를 실시했다.

주요 진도실내수영장 공사는 바닥에서 6.5m 높이에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931㎡를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 보강, 지

붕구조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 지진에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진도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은 "앞으로도 쾌적한 운동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군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도실내수영장에서 무료로 선착순 강습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수강 신청 기간 중 회원권을 발급 받아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시설관리사업소(061-540-6285)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한길준 기자 gjhan@

목포 평화광장, 빛의 정원 됐다 LED 야간 경관조명 설치

목포 평화광장이 빛의 정원으로 거듭났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평화광장 야간경관 개선·포토존 설치·환경정비로 '연인의 거리'와 '커피의 거리' 컨셉에 맞게 LED 조명을 활용한 빛의 정원을 조성했다.

평화광장 정원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명을 나무 아래서 비치며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트와 커피잔 조형물을 설치, 포토존과 볼거리도 확충했다.

경관조명은 일몰 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켜진다.

시는 목포 대표 관광지인 평화광장에 설치한 빛의 정원이 관광객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콘텐츠로 하당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완도 금일읍, 특별한 선상시무식 '눈길'

완도군 금일읍에서는 그동안 실시했던 행사의 틀을 과감히 벗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중무식 대신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나눔·봉사 활동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에 금일읍사무소 직원 및 금일 직십자봉사회, 감목리 이장 등이 참여해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의 집을 청소해드리고 김 30톤을 기부했다.

또한 기해년 새해에는 금일읍 전 직원은 사무실이 아닌 어민들과 함께하는 선상 시무식으로 한 해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시마, 전복, 미역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동안 군에서 이동군수실을 통해 펼쳤던 전복 칸 비우기와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에 대해 설명했으며, 어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구현 도장리 이장은 "날씨가 쌀쌀한 데도 읍사무소 전 직원들이 참석한 선상 시무식은 우리 어민들이 한 해를 힘차게

중무식 대신 주민들 참여 나눔·봉사활동 펼쳐



최근 완도군 금일읍사무소 직원들이 어민들과 함께하는 선상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윤 금일읍장은 "2019년도는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이 될 것이므로 우리 금일읍에서도 해양치유산업이 잘 추

진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자"고 피력했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무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우수'

무안군은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

시행 노력 및 업무추진 성과 등 9개 지표이며 평가결과 전국에서 39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무안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획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기사제보 2580@jndomin.kr



지역신문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